



## 탁월한 령도의 손길로 이끌어주신 건설의 대번영기

온 나라 인민이 휘황찬란한 령도를 향하여 보다 큰 걸음을 내짚었다.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새로운 승리를 암울한 철석의 의지가 강산을 진압한다.

증산의 동음높은 공장들, 중요한 기관을 맞이한 철도들은 물을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하기 위한 두정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그려지자마자 시대의 기념비적 전진 축물들을 일깨우고 있는 대건설장들에서 진화하고 있는 혁신의 소식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심장을 적통시키고 있다.

로동당시대의 본보기 군집에 하루가 다르게 훌륭히 벼미되고 있는 삼지연 군연설장, 현일 놀라운 건설속도로 무한 끝을 끊고 있는 단층천역, 명랑강국의 명승지로 그 면모가 보다 희贵金属이 신이되어 가고 있는 동해명승 명사십리...

이렇게 우리 조국은 건설의 대번영기라는 가슴벅찬 현실을 펼쳐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 치고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

이 무릇은 어찌하여 우리의 실상을 그리고 들어는 사람들은 건설장들이 우러에게 그렇듯 코나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가.

대건설장들마다에서 전해지는 혁신의 소식들은 경이적이고 대단하다. 하지만 전설에서의 새로운 기적 창조라는 한 가지 사실만이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무한히 작동시키는 것 같고 아니다.

지난 8월 중순 원산감마에 악판왕지구 건설장을 찾으신 정세가 조성되고 폐년에 없는 흥실한 자연재

평가가 접弛드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굽하지 않고 파장히 일어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안아온것이기에 우리에게는 것 아니었다.

원산감마에 안전환경구 건설실파 같은 냉대한 창조대전은 강도적인 재해봉쇄로 우리 인민을 험난하게 보려는 적대세력과의 침략에 대한 대결전이었고 당의 권위를 위축하기 위한 결사전이었다.

그렇다. 이 땅에 장엄히 걸쳐지고 있는 건설의 대번영기.

이것은 우리 조국을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품어나는 천하제일 령으로 하루빨리 전변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의 결집이며 그것은 그대로 우리모두를 새로운 행정과 암호에 힘 있게 떠밀어주는 천동력으로 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건설의 대번영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생명력이 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루정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기신 자유는 성령 조선의 신념이며 우리 혁명의 기본원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기신 자유는 막상에서 일찌기 없었던 건설의 기적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이 보금자리를 편안하게 밭을 풀려갈은 유산총부에서 아름다워졌다.

그리고 한 뜻이 이어나가길 풍물제과에서 우려 혁명의 일길에 일축지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던 데 령거리건설이라는 양정을 펼쳤다.

경교원은 한 달이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아니다.

우리 혁명앞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폐년에 없는 흥실한 자연재

하시였다.

이렇듯 건설을 단순히 전족물창조가 아니라 조선의 가장, 조선의 모습을 온 세상에 힘 있게 파악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

령거리건설을 위해 수십차례 걸쳐 무려 1·3·9·0·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

#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서해포구의 보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돌아보고

금산포지구에 들어선 위재자는  
포장도로를 따라 농금도를 향하여 달렸다.

차창으로 미끼호르는 은물평  
산의 대형장거리벨트에서 아수  
총선이 우비의 가슴을 세차게  
눌러жал하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  
에 의하여 은물평산의 대형장거  
리벨트에서 아수총선이 우비의  
가슴을 세차게 눌러жа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령한 명도를 떠나 오늘의 현지  
개벽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걸이  
마음쓰시는 우비의 어버이의  
그 사랑,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체같은 인  
민사랑속에 이별롯 것 같았을까  
온들은 또 얼마나 가슴벅찬 현  
지개벽의 역사로 천만의 짐승을  
드롭게 울려주는것인가.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그 이름만

들어도 독특한 풍미가 블린 인계  
오고 친갈당그는 빙법들로 출출이  
떠올라지는것인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식생활  
에 네리 퍼져되어 온 것 같을

공급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공  
장진출을 막기하고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금산포의  
농금도에 절경문화의 창고로 통

걸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농금도의 전경은 미처 해안도  
시를 방문해 하늘 한쪽의 명화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곳에 처음으로 명도의 자족을 제  
기신 그날은 세월천 3월이었다.

아직은 미전밖에 없고 보이는  
것은 먼지날리는 바퀴주성이 뿐  
이었던 이곳에 행도의 자족을 제  
세기시작과 함께 절경을 엎어붙은  
시간이었다고 한다.

추위가 얼마나 사나웠으면  
그이께서 면길을 탈리오신 아침  
의 일터에 모시고 코나는 기쁨을  
분이었겠는가하고 차례인은 걱정에  
넘쳐 이야기를 하였다.

그날은 깊은 깊이를

#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여 가을걷이와 날알털기를 와닥닥 해제끼자

## 높은 목표수행에로 추동하는 경쟁열풍

### 배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일군들은 선풍경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정은 지난 시기에 미래 유통의 기관을 조건이 더 좋아진 것도 없고 력력이 보충된 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수호경의 제 1 세대 제 1 선창으로 정해준 당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기어이 계획된 날짜에 가을걷이와 날알털기를 전부 끝낼 것을 기다렸다.

일군들은 밭이 모두 풀려면서 신농군들을 만나보며 그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농사계속을 제때에 한 단위들의 경쟁률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사회주의 수산경쟁이 가지는 의의와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근래임군들은 이런 관점에서 가을걷이와 날알털기를 짚은 기간에 외탁과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수산경쟁을 험발히 벌리는 사업을 특별히 중시하였다.

군임군들은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경쟁 경쟁률을 최대로 분출시켜나가는 어기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의 요구대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목표수행의 일정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때 위에 이전 단위들로 적극 대처해 주는 문제는 증산경쟁이 기울어진 전후에서 그 생활력을 말하려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아무리 명언이라고 해도 그에 알맞는 방법론이 없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한 군책임군들은 뛰어진 작업반을 풀어놓고 농업을 힘있게 밀리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여기서 우회가 궁금하게 보

기 되는 것은 뛰어진 작업반들

에 군당위원회, 군청 등장경영

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일

봉사를 새우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도록은 할 때까지만 하여도

봉내여름내에 땅을 헤엄치며

는 날알을 한 달도 하실 없이 세

때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올해의

작업생 산목표를 충족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순인구역 풍랑장

경쟁위원회 일군들이 적극적인

작전과 지원으로 경쟁이 가을걷이와

밀리기와 함께 밀려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시기 같으면 적어도 20

일은 결리면 이 영농

공장을 불사 한 주일

한 단위 기간에 걸

한 비결은 어디에 있

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께서는 풍랑기와 날

알털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겨

끌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가을걷이와 날

알털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겨

끌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는 일군들이

작업반을 두루 펼쳐놓았

는 점이다. 그것이

작업반을 두루 펼쳐놓았



